

☑️ 성과공유제 ☑️ 상품대금 지급시기 단축 ☑️ 상생펀드 ☑️ 캠페인

재신임 받은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상생경영 '박차'

홈앤쇼핑 취지에 입각해 '상생' '해외 판로지원 등 최선 다할 것'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이사

2018년 사업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재신임을 받은 홈앤쇼핑의 최종삼 대표가 중소기업과 상생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홈앤쇼핑은 지난달 29일 열린 8기 주총에 앞서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현 최종삼 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최 대표의 임기가 얼마되지 않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10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상품대금 지급시기 단축, 상생펀드, 캠페인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들과 상생에 더욱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게다가 판매수수료(실질수수료 기준)가 대기업 계열 홈쇼핑 5개사 평균에 비해 3.4%포인트(p) 저렴해 중소기업들이 홈앤쇼핑을 통해 보다 부담없이 판

로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2012년 개국한 홈앤쇼핑이 이듬해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매출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초과이익의 10~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협력업체에 돌아간 액수는 16억 3000만원에 달했다. 또 2017년부터는 기여도가 높은 협력사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 판매효율이 부진한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뀌 지난해의 경우 69개 협력사에 3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2013년 당시 300억원에서 시작한 상생펀드 운용규모는 지난해 7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생펀드는 시중 금리보다 2%p 낮은 금리를 적용해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대출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109개 협력사가 누적으로 585억원의 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앤쇼핑은 또 협력사에 대한 방송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지금은 평균 9일, 빠르게는 4일까지로 크게 단축했다. 당초연대금지급시기가 평균 32.5일이었다. 6년만에 시간을 3주 이상까지 줄인 것이다.

지난해 9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홈앤쇼핑의 실질 판매수수료는 27.5%였다. 이는 수수료가 가장 비싼 CJ오쇼핑(32.1%)보다 4.6%p 저렴한 수준이다. CJ오쇼핑에 이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 수수료는 NS(31.9%), 롯데(31.2%), 현대(30.4%), GS(28.8) 순으로 이들 5

개사 평균은 30.9%에 달했다.

이외에도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홍보방송인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 ▲MD상담회를 통해 우수 상품을 발굴해 방송하는 '일사천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최종삼 홈앤쇼핑 사장은 "홈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설립취지에 입각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함께 TV와 모바일, 해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40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4204억원보다 다소 주춤한 수치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48억원, 373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의 474억원, 386억원의 영업이익, 순이익에 비해 하락한 모습이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2.93%, 농협경제지주가 20%, 중소기업유통센터가 15%, 중소기업은행이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불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대형 산불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여경협의 전국 18개 지회 회원사가 모금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윤숙(사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



해를 입은 강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경협은 신임 정윤숙 회장 취임 이후 양육미혼모 경제적 자립 지원, D MZ 부근 지리 제거 및 유해발굴 격려 후원 등 사회 각계각층과 나눔 및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한남 기자 ericabae1683@

중견聯, 차세대 '젊은 CEO' 네트워크 탄탄히

제1회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신사업·해외진출전략 모색 등 교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차세대 최고경영자(CEO)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영(Young) CEO 네트워크'의 올해 첫 프로그램으로 '제1회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중견기업 Young CEO 네트워크'는 중견련을 중심으로 2017년 4월 출범한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들의 학습과 교류의 장이다. 중견련은 6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신사업 발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CEO포럼 ▲우수 중견기업의 경영철학과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중견기업 탐방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업현장 문제해결 위



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올해 첫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을 열고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독일 등과 연구,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부문 협력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공단개발 국영 회사 베카맥스(BECAMEX) 방문 등을 통해 인연을 맺은 베트남은 물론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등 많은 국가의 대사관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웰컴투 팁스'로 인천 창업 활성화

민간투자 등 연계 창업촉진 프로그램

수도권임에도 투자여건이 부족했던 인천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참여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제1회 웰컴투 팁스' 행사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웰컴투 팁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2013년부터 시작된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운영사를 활용한 창업팀 선별 후 민간투자자와 정부 R&D(연구·개발)를 연계하여 전문인력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현재까지 41개 민간 운영사 주도로 679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전체 창업자(2005명) 중 석·박사 인력이 57%(1146명), 국·내외



대기업 출신 30%(592명), 전문직 9%(189명)에 이른다.

팁스는 엔젤투자 1393억원과 후속투자 1억299억원으로 총 1억1692억원의 민간투자를 가지고 정부지원금 대비 민간투자를 4.1배 유치하는 등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제2의 벤처 붐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순회 개최되는 올해 첫 번째 행사다. 올해는 이번 인천 행사를 포함해 지방중기청, 창경센터 등을 포함한 지역 창업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 9회로 총 10회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배한남 기자

LG하우시스, '무이자 할부'로 인테리어 비용 부담 낮춘다

LG하우시스가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LG하우시스는 전국 공식 대리점 및 제휴 인테리어점에서 판매하는 창호·바닥재·벽지·인테리어대리석 등을 포함한 모든 인테리어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만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고객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외에 개인 신

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일시 증액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며 본인 한도 외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전국 공식 대리점 및 제휴 인테리어점 등 약 140여곳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상반기 중에 약 250여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대리점 및 제휴 인테리어점은 LG하우시스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LG하우시스의 플래그십 스토어 '지인스퀘어'를 방문한 고객이 바닥재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